

주의 영광을 위해

'2016 지역장·조장·구역장 헌신예배'와 당회장 이재록 목사의 이스라엘 선교의 열매인 크리스탈포럼 주최 찬양 페스티벌 소식.

구유에 누이신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짐승의 우리에서 태어나 구유에 누이시고, 가난하게 살도록 역사하신 깊고도 오묘한 사랑의 섭리.

모든 것을 믿고 바라며 견디는 사랑

영적인 사랑을 이루려면 연단 중에도 하나님 사랑을 굳게 믿고 소망을 이루는 지름길임을 확신하며 오직 선만 행해야 한다.

“내 소망되신 주님~”

죽음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새 생명을 얻고 연약한 곳이 치유되며, 평안과 축복이 넘치는 축복받은 성도들의 간증.

# 만민뉴스

제740호 2016년 5월 29일 (주간)

## MANMIN NEWS

교회 대표전화 02-818-7000

www.manmin.org

2016 지역장·조장·구역장 헌신예배

제목/ 믿음의 분량 (로마서 12:3)      강사/ 당회장 이재록 목사



강사 당회장 이재록 목사

지난 5월 22일, 우리 교회에서는 주일 저녁예배 시 '2016 지역장·조장·구역장 헌신예배'를 드렸다.

이날 헌신자들은 거주 지역으로 구분된 1대대 1~9교구, 2대대 10~21교구, 3대대 22~32교구, 그리고 중국교구(중국 동포와 중국

인 성도), 해외교구(국내 거주 외국인 성도)의 지역장, 조장, 구역장 1,690여 명이며 마산, 대전, 동광주, 구미, 밀양, 창원, 천안, 무안, 여수, 익산, 전주, 새광주 등 전국 43개 지교회에서도 동참했다.

GCN방송(www.gcntv.org)과 인터넷을 통해 전 세계 1만여 지·협력교회에 생중계 된 이날 헌신예배는 남지역장연합회 회장 박흥기 장로의 사회, 여구역장총연합회 회장 전경애 권사의 대표기도, 대전 만민교회 길미선 권사의 성경봉독에 이어 몸과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준비한 헌신자들의 은혜롭고 충만한 특송이 있었다.

강사 이재록 목사는 '믿음의 분량'(롬 12:3)이라는 제하의 말씀을 통해 사명자로서 합당한 믿음 성장을 이루기 위해 점검해야 할 세 가지 분야에 대해 증거했다.

“첫째, 내 마음의 깊이 곧 영적인 사랑과 덕, 온유함을 얼마나 이루었는지 둘째, 내 마음의 넓이 곧 얼마나 많은 영혼을 사랑으로 품고 마음에 담고 있는지 셋째, 믿음의 분량을 담을 만한 도구 곧 행함을 얼마나 이루고 있는지”를 점검해 봄으로 주님의 마음을 힘써 닦아갈 것을 당부했다.

남녀 지역장, 조장, 구역장 연합회(지도교사 이수진 목사)가 하나

되어 행복하게 준비한 헌신예배를 통해 헌신자들은 더욱 믿음 성장을 이뤄 주님의 심장으로 영혼들을 사

랑으로 갈무리하며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 이르기까지 힘써 달려갈 것을 다짐했다.



## 크리스탈포럼 주최 '이스라엘 찬양 페스티벌'



이스라엘 찬양 페스티벌은 올해에도 세계 각국에서 참가해 하나님께 영광 돌렸다. 우리 교회도 초청받아 솔리스트 주성걸 집사와 글로리 워십팀(중앙)의 찬양과 워십 등을 통해 은혜와 감동을 전하며 관객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지난 5월 14일 토요일 오후 6시(현지시간), 이스라엘 키부츠 쉬파임 대강당에서 한국과 이스라엘 전역 메시아니 주(예수님을 구세주로 믿는 유대인)를 비롯해 러시아, 우크라이나, 필리핀, 아프리카, 라트비아 등 여러 나라에서 9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찬양 페스티벌'이 열렸다.

이 행사는 크리스탈포럼(이스라엘목회자

협의회)이 2010년에 시작하여 올해 7회를 맞았으며, 2012년부터 우리 교회 공연팀이 초청받아 하나님께 영광 돌렸다. 올해는 예능위원회 솔리스트 주성걸 집사와 글로리 워십팀이 행사의 앞부분과 클라이맥스를 담당해 찬양과 부채를 이용한 전통무용, 워십, 그리고 솔로와 회중찬양 인도로 참석자들에게 큰 호응을 얻으며 영광 돌렸다.

특히 이 행사는 GCN방송을 비롯 러시아 어권 기독교방송사인 TBN러시아, CNL, 임팩트TV, 인빅토리 등에서 위성과 인터넷으로 생중계 하여 이스라엘뿐 아니라 러시아, 우크라이나, 미국, 카자흐스탄 등 많은 나라에서도 동참하였다.

한편, 크리스탈포럼은 2007년 7월부터 3년간 12차례 이스라엘 전역을 순회하며 따

르는 권능의 역사로 복음을 전한 이재록 목사의 선교 사역을 통해 영적 담대함을 얻은 이스라엘 목회자들이 연합해 설립됐다.

2009년 9월, 예루살렘 ICC에서 개최한 '이재록 목사 초청 연합대성회' 주최 후 매년 찬양 페스티벌, 손수건 집회와 목회자 세미나, 청소년 캠프, 부부 세미나 등 다양한 사역을 통해 개신교 부흥에 큰 영향을 끼치고 있다.



당회장 이재록 목사

“오늘날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싸여  
구유에 누인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누가복음 2:11~12)

# 구유에 누이신 예수님

만물의 영장이라 불리는 사람들이 자기 욕심을 채우고자 전쟁을 일으켜 수많은 사람을 죽이는가 하면, 물질의 욕심 때문에 가족끼리 싸우고 고소하며 심지어는 죽이기까지 합니다. 원래 하나님께서는 선하고 거룩하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지으셨습니다. 그런데 범죄한 아담으로 인해 사람의 주인인 영이 죽게 되니 사람의 본분을 잃어버린 채 세상 정욕과 자기 욕심에 따라 온갖 죄를 지으며 살아가지요.

요한복음 6장 51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나는 하늘로서 내려온 산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나의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로라” 말씀 하셨습니다. 여기서 ‘하늘로서 내려온 산 떡’을 먹는다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마음에 양식 삼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람의 몸이 양식을 먹어야 살 수 있듯이 사람의 영도 영의 양식을 먹어야 영생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로써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 주시는 생명의 양식을 먹어야 사람의 본분을 되찾고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바로 이러한 하나님의 섭리를 알려 주시기 위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짐승의 우리에서 태어나 짐승의 먹이통인 구유에 누이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람이 어떻게 해야 짐승과 다를 바 없는 삶에서 벗어나 사람의 본분을 되찾을 수 있을까요? 전도서 12장 13절에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지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니라” 했습니다. 성경에 ‘하라, 하지 말라, 지키라, 버리라’ 말씀한 대로 행하는 것이 곧 하나님 명령을 지키는 것이며, 사람의 본분을 되찾는 길입니다.

사랑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힘들게 하려고 이런 명령을 하신 것이 아닙니다.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여 “공부해라.” 당부하며 사람의 도리를 가르치듯이 하나님께서도 그의 자녀들이 사람의 본분을 다해 축복된 삶을 영위하도록 알려 주시는 것이지요. 모든 사람이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하시기 위한 섬세한 사랑의 표현입니다.

## 2. 하나님의 아들로써 부요하신 예수님께서 가난한 길을 가신 이유

마태복음 8장 20절에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으되 오직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말씀한 대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서는 복음을 선포하고 많은 병자를 치료하셨지만 일정한 거처도 없으셨지요. 이처럼 공생애 기간 동안 수많은 기적을 베푸셨는데도 예수님께서 굳이 가난한 삶을 사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고린도후서 8장 9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자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을 인하여 너희로 부요케 하려 하심이니라” 말씀한 대로 우리에게 부요의 축복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첫 사람 아담이 에덴동산에서 살아갈 때는 모든 것이 풍성했고 수고할 필요가 없었지만, 아담이 범죄한 후로는 사람과 함께 만물도 저주를 받아 땀 흘려 경작을 해야 식물을 얻을 수 있게 되었지요(창 3:17). 이처럼 모든 사람이 가난을 겪는 것은 첫 사람 아담의 범죄로 인한 저주이기에 예수님께서 가난을 대속해 주시고자 친히 가난한 길을 가신 것입니다.

혹자는 하나님께 물질의 축복을 구하는 것이 잘못됐다고 말하기도 하지만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요케 하신다는 수많은 축복의 말씀이 있습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비롯하여 이삭이나 야곱, 요셉 등 하나님을 경외하여 말씀에 순종한 믿음의 선진들을 보면 풍성하고 부요한 삶을 누렸지요. 우리도 가난을 대속하신 주님의 은혜 속에 부요의 축복을 받아야 합니다. 물론 욕심이 아닌 구제와 선교, 성전 건축 등 선한 일에 사용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구해야 하지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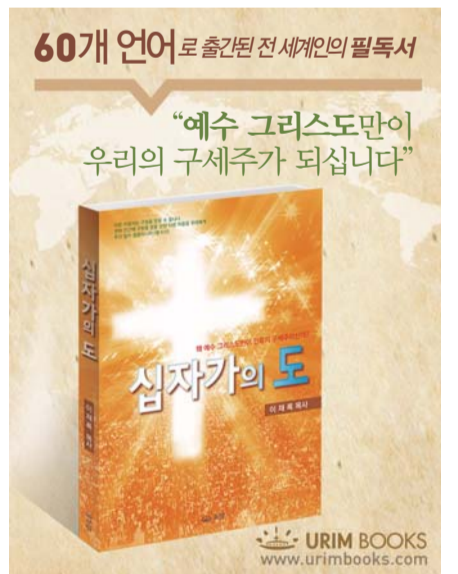
사랑의 하나님께서는 자녀들이 믿음으로 구하는 것마다 주기를 원하시지만(마 7:11) 무조건 “축복 주세요.”라고 기도한다고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요한삼서 1장 2절에 “사랑하는 자여 네 영혼이 잘됨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하신 말씀처럼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려면 영혼이 잘되어야

합니다. 여기서 ‘영혼이 잘된다’는 것은 하나님 말씀대로 행함으로 잃었던 하나님의 형상을 되찾는 것을 뜻하지요.

신명기 28장 2절에도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와의 말씀을 순종하면 이 모든 복이 네게 임하며 네게 미치리니” 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라 해도 축복을 받으려면 믿음으로 씨를 심어야 합니다. 믿음이 큰 사람도 많이 심을 때 많이 거두며, 적게 심으면 적게 거둘 수밖에 없습니다(고후 9:6).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은 누르고 흔들여 넘치도록, 곧 갑절 이상을 주시고 영혼이 잘된 만큼 30배, 60배, 혹은 100배로 갚아 주시지요.

그런데 여기서 많이 심는 자가 많이 거둔다는 말은 단지 액수나 분량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각 사람이 어떤 중심으로 사랑과 믿음을 갖고 심었는지 그 중심의 향을 받으십니다. 예수님께서 구차한 중에도 자기 소유의 전부와 같은 두 렘돈을 드린 가난한 과부를 칭찬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마음과 정성을 다해 드린 중심의 향을 기뻐 받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어 짐승의 구유에 누이시고 가난하게 살도록 역사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사람의 본분을 되찾고, 구원과 응답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본체로서 천지만물의 주인이 되시며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가 되시는 분입니다(벧 2:6 ; 계 19:16). 그러나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초라하게 구유에 누이시고 가난을 겪으셔야만 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 1.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짐승의 우리에 태어나 구유에 누이신 이유

누가복음 2장 1~7절에는 성령의 능력으로 예수님을 잉태한 동정녀 마리아가 요셉과 함께 베들레헴으로 호적하러 갔다가 아들을 낳은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이 물려 거할 사관을 찾지 못해 짐승의 우리에서 해산해 아기를 구유에 눕혀야 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서 호화로운 왕궁이 아니라 누추한 짐승의 우리에서 태어나 구유에 누이신 것은 하나님의 크신 섭리가 있기 때문입니다.

전도서 3장 18절에 “내가 심중에 이르기 인생의 일에 대하여 하나님이 저희를 시험하시리니 저희로 자기가 짐승보다 다름이 없는 줄을 깨닫게 하려 하심이라” 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한 사람을 짐승에 비유하니 이상히 여길 수 있지만 사람의 악함을 보면 짐승보다 못한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요.

**만민뉴스**  
등록 다-1840(1989. 7.12)

발행인 이재록  
편집인 빈금선  
인쇄인 이호영

e-mail news@manminnews.com  
홈페이지 www.manminnews.com

**만민중앙성경교회**  
서울특별시 구로구 디지털로26길 29  
대표전화 02) 818-7000



- 교회 요시는 길**
- 2호선 구로디지털단지역에서
    - 1번 출구에서 환승 5536번 시내버스(교회앞 하차)
    - 30분간격 교회버스 이용
    - 2, 3번 출구에서 도보 10분 거리
  - 7호선 남구로역에서
    - 2번 출구에서 구로남초등학교 방향, 도보 10분 거리
  - 시내버스
    - 5536, 5615번(교회앞 하차)
    - 503, 504, 571, 652, 5618, 5619, 5626, 5630, 5712, 5714번(디지털단지 오거리 하차)
  - 교회버스
    - 각 지역별로 서울시 및 경기도 일원에 운행
    - 문의 : 차량국(02)818-7391~3

**만민중앙교회 예배안내**

주일 대예배	1부 10:00 AM 2부 11:30 AM
주일 저녁예배	3:00 PM
주일 빛과소금성경교회 예배	9:00 PM
주일 빛과소금성경교회(요식업) 예배	11:00 PM
금요일예배	11:00 PM
수요일예배	7:00 PM
화요일예배 [청년·가나안]	8:00 PM
수요일예배 [빛과소금]	9:00 PM
토요일예배 [중·고등부]	4:00 PM
토요일예배 [아동부]	3:00 PM
다. 일월야 기도회	9:00 PM (매일/ 단, 금요일은 제외)
새벽예배	5:00 AM (매일/ 단, 토요일은 제외)

**만민뉴스는 무료입니다**

다만 정기구독 시 우송료만은 정기구독자가 부담합니다. 구독신청 후 온라인으로 송금하시면 됩니다.

우 송 료 : 1년분 10,000원 (신문대금은 무료)

구독신청 : manminnews.com  
070-8240-2074

우리는행 1002-480-336879 (예금주 이호상)

# 모든 것을 믿고 바라며 견디는 영적인 사랑을 실천하려면

내 주변에 하는 일마다 실수를 해서 사람들을 힘들게 하고 피해를 주며 작은 일에도 곧잘 불평하고 걸핏하면 토라지는 사람이 있어 혹여 '차라리 저 사람은 없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한 적은 없는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모든 것을 참고 믿으며 바라고 견디도록 영적인 사랑을 실천하는 방법을 소개한다.

## ◆ STEP 1 ◆

하나님의 사랑을 끝까지 굳게 믿어야 한다

베드로전서 1장 7절에 “너희 믿음의 시련이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 함이라” 했다. 사랑의 하나님께서는 구원받은 성도들의 믿음이 날로 성장해 불같은 시험이 온다 해도 능히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원하신다. 그 래야 영원한 천국에서 세세토록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함께 누릴 수 있기 때문이다. 우리가 주님을 믿고 온전히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다 보면 애매히 고난받는 일들

이 생기게 된다. 이러한 믿음의 시련을 통과하려면 자신이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믿어야 한다. 이는 더 좋은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크신 사랑임을 깨달아 마음 중심에서 감사해야 한다. 또한 믿음의 시련에는 아픔이 따르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믿되 끝까지 믿어야 한다. 혹여 고통이 심하고 시간이 길어진다면 ‘하나님께서 왜 도와주지 않을까? 정말 나를 사랑하시나?’ 하는 생각이 들 수도 있다. 만일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한다면 포기하

고 싶어지거나 원망하고 불평하는 마음이 들 수 있으니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한 번 굳게 새기고 인내해야 한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기에 좋은 천국으로 이끌기 원하신다는 사실을 믿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처럼 하나님의 사랑을 끝까지 믿고 인내하면 결국 온전한 사람으로 나오게 된다(약 1:4). 연단은 섬세하게 간섭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다.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을 끝까지 굳게, 변함없이 믿는다면 모든 연단을 능히 견디고 승리할 수 있다.

## ◆ STEP 2 ◆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지름길을 믿어야 한다

로마서 5장 3~4절에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앎이로다” 말씀한 대로 연단은 소망을 신속히 이루게 하는 지름길과 같다. 처음에는 ‘어느 세월에 변화될 수 있을까?’ 라고 생각될 수 있지만, 연단을 잘 견뎌므로 변화되면 결국 하나님을 닮은 온전한 자녀가 될 수 있다. 가장 아름다운 천국 새 예루살렘 성에 갈 수 있는 자격을 갖추게 된다.

그러므로 연단이 오면 피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통과하려고 노력해야 한다. 물론 좀 더 쉬운 길로 가기 원하는 것이 사람의 마음이지만, 연단을 피한다면 그만큼 소망하는 목적지에도 더디 갈 수밖에 없다. 예를 들어, 자신을 보고 사사건건 트집을 잡는 사람이 있다면 드러내 놓고 싫은 내색은 하지 않지만 그 사람을 보면 마음이 불편해져 자꾸 피하고 싶어진다. 그런데 이때도 외면하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부딪쳐야

한다. 그 사람과 부딪힐 때의 힘들음을 인내하며 상대를 진정 이해하고 용서하는 마음을 이뤄야 한다는 것이다. 이처럼 스스로 노력할 때 하나님께서 은혜와 능력을 주시니 상대를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소유하게 된다. 그러므로 연단 과정이 오히려 소망을 향해 가는 징검다리가 되고 지름길이 된다는 사실을 깨달아 영적인 사랑을 신속히 이루고 싶다면 연단이 올 때 지름길을 만났다고 믿고 기쁨으로 승리하기 바란다.

## ◆ STEP 3 ◆

하나님의 말씀대로 오직 선만 행해야 한다

다니엘 6장을 보면 다니엘은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대로만 살았는데 악한 자들에 의해 사자굴에 던짐을 받았다. 그래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고, 모함임을 알면서도 자신을 사자굴에 던진 왕과 모함한 이들을 원망하지도 않았다. 하나님 뜻을 알기에 오직 선으로 대응했던 것이다. 이에 하나님께서는 천사들을 보내 사자들의 입을 봉하고 다니엘이 털끝 하나 상하지 않도록 지켜 주셨다. 오히려 계락을 꾸렸던 악한 자들이 사자밥이 되고 말았다. 혹여 다니엘이 악을 행하는 자들에게 선으로 대항 것이 미련해 보일 수 있다. 그러나 영계의 법칙을 안다면 오직 선을 행하는 것이 진정한 지혜요, 축복의 길임을 깨우쳐 악을 선으로 이겨야 한다.

육적으로 보면 시험이나 환난은 사람이 나 어떤 환경으로 인해 오는 것처럼 보이지만 영적으로는 원수 마귀 사단이 가져다주는 것이다. 따라서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하려면 영계의 법칙대로 싸워야 이길 수 있다. 로마서 12장 21절에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했다. 이렇게 선을 행하면 당장에는 지는 것 같고 손해 보는 듯 보이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다. 인간의 모든 생사화복은 공의롭고 선하신 하나님께서 영계의 법대로 주관해 나가시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믿지 않는 가족에게 핍박을 받는다면 믿음을 지키기 위해 인내하고 견뎌야 한다. 오직 선을 행해야 핍박이 신속히 물러가고 마음이 복음화 될 수 있다. 그런데 오

히려 ‘왜 저렇게 악할까?’ 생각하며, 어찌하든 핍박하는 가족을 말로 설득하고 이기려 한다면 오히려 시험이 커지거나 길어질 수 있다. 먼저는 사랑으로 그 마음을 녹이고 감동시키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사랑으로 기도해 주고 주 안에서 섬김으로 가정을 환하게 밝히는 빛이 되어 주어야 하는 것이다. 또한 어떤 상황 속에서도 선으로 생각하고 믿음의 고백을 해야 한다. 사도 바울과 같이 “나는 날마다 죽노라” 고 백하며 오직 선을 행하면 가장 좋은 때에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신다. 영적인 싸움에서 가장 강력한 무기는 사람의 힘이나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선이기 때문이다. 어떤 시험을 만나든지 오직 선으로 인내하고 선만 행함으로 축복이 넘치길 바란다.



**주요 프로그램 안내**  
2016. 5.29~ 6.4

이재록 목사의 생명의 말씀	GCN TV설교	예능 프로그램	해외성회 프로그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믿음을 축량하시니 13-19</li> <li>■ 선 4</li> <li>■ 의와 틀을 깨뜨리자 1-2</li> <li>■ 일곱교회 1</li> <li>■ 온전한 십일조와 헌물 1</li> <li>■ 사랑장 3-7</li> <li>■ 창세기 강해 36-40</li> <li>■ 성경적 결혼관 12-16</li> <li>■ 신앙생활 쉽게하기 2</li> <li>■ 믿음의 분량 12-16</li> <li>■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 4</li> <li>■ 응답과 축복의 하나님 1-4</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순교의 신앙 1 (이수진 목사)</li> <li>■ 지혜 4 (이미영 목사)</li> <li>■ 영의 세계 8 (이희선 목사)</li> <li>■ 보혜사 성령 (신동초 목사)</li> <li>■ 열재앙 26 (정구영 목사)</li> <li>■ 위로부터 난 지혜 4 (김수정 목사)</li> <li>■ 하나님은 하시나니 (이재정 전도사)</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몸도 튼튼 마음도 튼튼 (다시해보기) 16</li> <li>■ 알콩달콩 어여쁜 율동 57</li> <li>■ 내 마음의 찬양 26</li> <li>■ 창조와 과학 24</li> <li>■ English 15</li> <li>■ 모두 드려요 49</li> <li>■ 뷰티풀 라이프 1</li> <li>■ 즐거운 요리 1</li> <li>■ 흥겨운 소리 1</li> <li>■ 옛날 옛적에 9</li> <li>■ 플로리스트 2</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독일 연합대성회 3</li> <li>■ 믿음으로 걸어온 길 43</li> <li>■ 회상 시즌2 9</li> </ul>

# “살아 계신 하나님, 그분으로 인해 행복합니다!”

49년간 들리지 않던  
왼쪽 귀의  
청력이 회복돼

심근경색으로  
죽음 직전에서  
권능의 기도로 살아나

김성실 집사 (62세)

김연옥 성도 (57세)

저는 2009년 중국 천진의 한 병원에서 심근경색으로 죽음 직전에 있었습니다. 의사는 모든 방법을 동원해도 낫지 않는다면 마지막으로 화장터 가는 증명서를 써주었지요.

딸 한송연 집사는 연길에 있는 언니 김성옥 집사에게 전화를 걸어 당회장 이재록 목사님의 기도를 받고 싶다고 했습니다. 언니는 만민중앙교회에 연락해 기도를 요청했고, 병원에 있던 저는 휴대폰을 통해 주일예배 때 해주시는 당회장님의 환자기도를 받을 수 있었지요.

그 당시 저는 제 가슴에서 큼직한 돌이 나오는 환상을 보았습니다. 그 돌을 찾느라 제가 두리번거리자 딸이 무엇을 찾느냐고 묻기에 환상을 말해 주니 “이젠 우리 어머니 살았다!”며 기뻐하였습니다.

저는 퇴원하려고 의사를 불렀는데, 의사는 호상(초상 때 상례에 관한 일을 주선하고 보살피는 일, 또는 그 사람)을 데리고 와서 멀쩡히 서 있는 저를 보고 매우 놀랐지요. 저는 하나님의 놀라운 권능으로 지금까지 이렇게 살아 있습니다. 할렐루야!

지식도 즐하고 가진 것도 없는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살아 계신 하나님, 천국이나 지옥을 모른 채 죽어가는 사람들에게 제가 만난 사랑의 하나님을 전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제 삶의 이유가 되었지요.

모든 감사와 영광을 삼위일체 하나님께 돌립니다.



중국 교구의 김성실 집사(좌)와 김연옥 성도. 올해 3월 13일 '전 성도 전도대회' 첫날 김성실 집사의 전도로 등록한 김연옥 성도는 49년간 들리지 않던 왼쪽 귀가 들리게 되었다.

저는 아홉 살 때 귀앓이를 심하게 한 뒤로 왼쪽 귀의 청력을 잃었습니다. 타고회에서 10년간 신앙생활을 하면서 설교를 잘 듣지 못하니 항상 답답했고 사람들을 대할 때도 소극적이었지요.

2016년 3월 12일, 동네를 산책하던 중 만민뉴스를 들고 노방전도를 하던 김성실 집사님을 만났습니다. 만민중앙교회와 당회장 이재록 목사님을 통해 나타나는 권능에 대해 듣게 되었고 다음날 주일 대예배 시 등록하였습니다.

성전에 들어서니 마치 천국 같이 환한 느낌을 받았고, ‘하나님이 나를 이 교회로 인도해 주셨구나!’ 하는 믿음과 확신이 들어 감사의 눈물을 많이 흘렸습니다. 그래서 교회에 등록한 후 각종 예배와 다니엘철야 기도회에 참석하며 성령충만한 은혜를 받았지요.

3월 말에는 만민기도원 은사집회에 참석해 이복남 원장님의 설교를 듣고 지난날 부모와 형제, 직장 동료들을 미워했던 것을 회개하였습니다. 이어 당회장님께서 기도해 주신 권능의 손수건 기도(행 19:11~12)를 받았는데, 순간 찌릿찌릿한 느낌이 오더니 49년간 들리지 않던 왼쪽 귀가 들리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믿기지 않는 사실이 참으로 놀랍고 신기했습니다. 이제는 소리가 잘 들리니 얼마나 행복한지요. 귀한 제단을 만나게 해 주신 사랑의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기도해 주신 당회장님께도 감사드립니다.

# “성결의 복음으로 변화되니 응답과 축복이 넘칩니다”

저는 가톨릭 신자였지만 구원의 확신도 참 평안도 없었습니다. 세상 친구들과 술자리도 자주하며 세상을 즐겼고 사소한 것에도 미워하고 감정을 품곤 했지요. 게다가 밖에서 안 좋은 일이 생기면 아내를 때리며 화풀이를 하니 가정이 평안치 못했습니다. 당시 해군 대위로 재직했지만 여러 이유로 승진도 어려운 상황이었지요.

2006년, 한국에서 온 세계적인 부흥사 이재록 목사님을 통해 놀라운 치유 역사가 베풀어진다는 소식을 듣고 ‘공고 연합대성회’에 참석하였습니다. 불치·난치병을 치료받는 광경을 목도하고 말씀에 큰 감명을 받은 저는 킨사 사만민교회가 있다는 말을 듣고 직접 찾아갔지요.

2007년 1월, 만민의 양 떼가 되어 GCN방송을 통해 당회장님의 설교를 들으며 참된 크리스천의 삶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구원의 확신으로 감사와 기쁨이 넘쳤습니다. ‘십자가의 도’ 말씀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세주가 되시는 이유를 듣고 나니 놀랍고 신비로웠습니다.



세포리아 아이주리 말롬바 집사 (55세, 공고민주공화국 킨사사만민교회) 주 안에서 행복한 세포리아 집사(오른쪽 네 번째) 가족

이처럼 깊이 있는 영적 말씀과 마음의 할례에 대해 들으니 제 마음과 생각도 진리로 채워지며 점차 변화되었습니다. 하나님 은혜로 술과 담배를 끊고 거친 성격이 온유한 성품으로 바뀌었으며 더 이상 아내를 때리지 않게 되었습니다. 제가 변화되자 가족은 제가 다니는 교회에 관심을 갖더니 결국 등록하여 함께 신앙생활을 하게 되

었지요. 또한 가정이 화목하고 평안해 지니 하나님께서는 축복을 넘치게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저는 작년 3월, 왼쪽 다리의 통증으로 잘 걷지 못했는데 담임 이호수 목사님이 당회장님께 기도받은 권능의 손수건(행 19:11~12)으로 기도해 주시자 치료받았습니다.

제 아내는 당회장님의 환자기도로 류머티즘성 관절염을, 둘째 딸은 권능의 손수건 기도로 식중독을 치료받았고, 약하게 태어나 인큐베이터 신세를 켜던 작은 손녀딸도 건강하게 무럭무럭 성장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여 열심히 기도하며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자 하니 분야 분야에 축복이 넘칩니다.

저는 고속 승진하여 소령을 거쳐 중령이 되었고, 교회에서는 교회 운영위원장의 사명을 맡고 있지요. 자녀들도 충성하는 일꾼이 되었습니다. 목자의 공간 안에 축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친히 이끄신 사랑의 하나님께 모든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국내 지교회, 지성전 주소 및 연락처**

주일 대예배, 주일 자책예배, 금요일예배를 서울 만민중앙교회와 NSS-6를 통해 동시 화상예배로 드립니다.

- 강릉만민교회 강원도 강릉시 하명3길 11 ☎033)641-3790, 010-6334-7750
- 거제만민교회 경남 거제시 신부로 3길 8 ☎055)687-6882, 010-3800-2048
- 경주만민교회 경상북도 경주시 충효중앙길 101호 ☎054)920-4512, 010-3343-1537
- 공주만민교회 충남 공주시 번영1로 34 ☎041)881-7000, 010-3030-7025
- 구미만민교회 경북 칠곡군 북삼읍 금오대로6길 30 ☎054)920-4512, 010-3343-1537
- 군산만민교회 전북 군산시 상나운안길 11 ☎063)468-7027, 010-7777-7027
- 김해만민교회 경남 김해시 김해대로 2421 ☎055)322-7055, 010-6605-2254
- 광주만민교회 광주광역시 서구 하남대로 550번길 39-33 ☎062)513-2455, 010-8888-0727
- 남울산만민교회 울산광역시 중구 산전길 9 ☎052)291-2253, 010-2505-1537

- 남포항만민교회 경북 포항시 남구 새천년대로 409-15 ☎054)281-2468, 010-9773-7017
- 대구만민교회 대구광역시 북구 칠성남로 50 ☎053)356-4717, 010-4575-1934
- 대전만민교회 대전광역시 대덕구 대화로 26 ☎042)625-1205, 633-6283, 010-5434-3927
- 동광주만민교회 광주광역시 북구 월동로 82-10 ☎062)266-7001, 010-3637-6443
- 마산만민성결교회 경남 창원시 마산회원구 무학로 654 ☎055)247-8891~2, 010-3559-9067
- 목포만민성결교회 전남 목포시 용당로 281, 종원빌딩 301호 ☎061)284-3133, 010-2629-8275
- 무안만민교회 전남 무안군 해제면 해제대로 167-82 ☎061)452-7443, 010-3153-1723
- 밀양만민교회 경남 밀양시 시청서길 36 ☎055)353-9192, 010-9382-2073
- 부산만민성결교회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동평로 168 ☎051)805-3898, 010-4182-4194
- 사랑만민교회 서울 강동구 금암로 135 ☎042)841-0091, 010-7195-1099
- 새광주만민교회 광주시 서구 차평로 60 302호 ☎062)372-1002, 010-2290-7779
- 새창주만민교회 충북 청주시 청원구 울봉로176번길 62 ☎070-4823-7173, 010-8291-7173

- 서부산민민교회 부산광역시 북구 백양대로 1013 (구남지하철역) ☎051)326-1537, 010-7213-6207
- 서산만민교회 충남 서산시 잠동1길 24 ☎041)667-4721, 010-2781-2073
- 속초만민교회 강원도 속초시 미시령로 3383 ☎033)637-0271, 010-7733-1327
- 순천만민교회 전남 순천시 조례못들길 27 ☎070-4028-2515, 010-2536-2515
- 아산만민교회 충남 아산시 번영로169번길 22 ☎041)546-1537, 010-2672-0244
- 안성만민교회 경기도 안성시 공도읍 진달길 64 ☎031)652-9981, 010-3278-7712
- 여수만민성결교회 전남 여수시 둔덕3길 11-2 ☎061)652-8311, 010-2325-1228
- 연천만민교회 경기도 연천군 백학면 백양로 234번길 25-4 ☎031)835-1717, 010-7307-2217
- 울산만민교회 울산광역시 남구 돌질로355번길 12-1 ☎052)257-5011, 010-2485-1537
- 원주만민교회 강원도 원주시 개운5길 57 (개운동) ☎033)766-1535, 010-9108-2073
- 익산만민교회 전북 익산시 평동로2길 6 ☎063)853-0675, 010-3637-0263
- 전주만민교회 전북 전주시 완산구 한절길 30 ☎063)223-9991, 010-4202-1537

- 제주만민교회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오도9길 55-4 ☎064)745-0675, 010-2468-2251
- 진주문만민교회 경남 사천시 사천읍 선인길 7, 2동 3호 ☎055)852-5815, 010-9196-3927
- 청원만민교회 경남 청원시 성산구 연덕로184번길 28 ☎055)289-9522, 010-9331-4405
- 천안만민성결교회 충남 천안시 서북구 성정1길 5 ☎041)577-7077, 010-3447-7077
- 청주만민교회 충북 청주시 서원구 구룡산로326번길 32 ☎043)293-7077, 010-9271-7017
- 충천만민교회 강원도 춘천시 효자로 13 ☎033)261-4217, 010-2759-7017
- 충주만민교회 충북 충주시 연수로 7 두진상가 201호 ☎043)845-0617, 010-2278-0641
- 통영만민교회 경남 통영시 광도면 남해안대로 861 ☎055)648-9107, 010-7224-8891
- 포항만민성결교회 경북 포항시 북구 중앙로 177 ☎054)281-9367, 010-8433-2073
- 해운대만민교회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송정광어골로 76 ☎010-8020-7333

- 강동지성전 서울시 강동구 양재대로 1508, 호유빌딩 지하 ☎02)489-3766, 010-3330-3172
- 검단지성전 인천시 서구 완정로 162 ☎010-3232-7504
- 구리지성전 경기도 구리시 안골로 46, 광명빌딩 5층 ☎031)552-7397, 010-8163-1537
- 부평지성전 인천광역시 부평구 주부토로 112, 5층 ☎010-3232-7504
- 북부지성전 서울시 강북구 도봉로 172 ☎02)995-9951, 010-2276-1014
- 분당지성전 성남시 분당구 아탈로 95 ☎010-6355-1928
- 수원지성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영통로 200번길 43, 2층 ☎031)202-8480, 010-3049-2072
- 안산지성전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광안로 22, 은성빌딩 3층 ☎031)485-9143, 010-6395-0143
- 이천지성전 경기도 이천시 중리천로 126-7 ☎031)635-9103, 010-9458-3922
- 인천지성전 인천광역시 남구 석정로 424, 3층 ☎032)863-9857, 010-2208-5719
- 일산지성전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강촌로 18, 아람D ☎031)905-2419, 010-2276-1014
- 의정부지성전 경기도 의정부시 평화로 483, 2층 ☎031)840-2906, 010-8163-1537